

梅月堂의 屈原 受容樣相

李 昌 龍*

序 言

I. 梅月堂과 屈原

1. 梅月堂의 特性
2. 屈原의 特性

II. 梅月堂의 視角

III. 細讀 離騷經

IV. 語句上의 受容

結 言

序 言

梅月堂 金時習이 어느 누구보다도 屈原을 同情하고 한편으로는 尊敬을 아끼지 않았으니 거기에는 特別한 理由가 있었다. 그는 幼年時節부터 天賦 神童으로서 世宗은 그에게 將來 國家의 큰 材木으로 키울 것을 부탁할 程度였다. 그러나 21세 되던 해에 그는 憤然히 學業을 中斷하고 放浪의 길을 떠났다. 그것은 首陽大君이 어린 端宗에게서 王位를 篡奪하였다는 悲報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屈原의 放浪 動機와는 서로 달랐지만 그는 自身の 處地를 屈原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울면서 <離騷經>을 읽었다고 하니 그가 屈原에 대한 深度 있는 共感을 가지고 있었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는 먼저 屈原이 汨羅水에 投身한 悲劇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鬱憤과 憐憫의 情을 가졌고, 그때마다 <離騷經>을 耽讀하였으니 그의 著作 속에 屈原의 投影이 짙게 깔려 있었을 것임을 쉽게 推測할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을 前提로 本論文은 그가 屈原에 대한 共感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떤 方法으로 消化하여 生活이나 作品 속에 受容 反映하였는가를 究明할 目的으로 試圖하였다.

* 建國大

I. 梅月堂과 屈原

梅月堂의 屈原에 대한 受容樣相을 生活이나 性格面에서 얻은 共感과 作品面에서 얻은 受容으로 二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著作에 앞서 두 사람의 特性에 대하여 먼저 考察하겠다.

1. 梅月堂의 特性

梅月堂은 李朝創業으로 政治 經濟 文化의 모든 分野에서 革新的인 理念에 立脚하여 新舊勢力이 交替되고 思想面에서는 排佛崇儒를 國是로 삼고 集賢殿을 中心으로 李朝의 文化가 開化하려는 背景 속에서 成長하였다. 그 당시 集賢殿 學者들의 經世哲學은 孔孟의 仁義를 實踐하는 일이었으나 때마침 世祖篡奪의 悲劇을 맞이하였으니 그들은 大義名분이 무너지고 霸道가 날뛰는 不義를 앞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앞장서서 목숨을 던져 義學하였다.

梅月堂은 다섯 살 때에 「大學」에 통달하고 筆力도 있어서 神童이라고 불리었다. (五歲通大學能屬文號神童 <梅月堂全集附錄 卷 1·1 遺蹟搜補>) 그런데 21세 때 三角山 속에서 글을 읽다가 端宗이 遜位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닫고 나오지 않다가 3日만에 크게 통곡하고 책을 불태워 버리고 도망쳐 나와 몸을 佛門에 依托하였다”고 하니 그의 放浪과 奇怪한 行動을 하게 된 動機가 다만 端宗의 遜位에만 있듯이 보이나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宿病때문에 마음은 平生 不快한 나날을 보냈고, “失母十三歲 提携鞠外婆 未幾歸窀穸 生業轉儂樞 簪笏纓情少 雲林着意多 唯思忘世事 恣意臥山阿”(梅月堂詩集 卷 14·23 叙悶)과 같이 慈母와 外婆마저 잃고 脫俗世의 뜻을 가졌고, 거기에 科學의 失敗等 加重한 困苦로 世事에 대하여 더욱 懷疑와 虛無를 直感하였다. 때마침 世祖의 王位篡奪의 悲劇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이 世上에 머물러 있을 口實을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複合的인 原因때문에 그는 世上을 등지고 放浪의 길을 떠났다. 그는 10대에

1) 金時習, 梅月堂全集(서울: 大東文化研究院, 1973), p. 462.

는 학업에 전념하였고, 20대에는 山川을 放浪하였고, 30 대에는 修道와 思索에 專念하였고, 40대에는 추악한 現實에 대하여 抗拒하였고, 50대에는 自然에 歸依하여 恨 많은 生涯를 無量寺에서 마쳤다. 그의 一生은 放浪과 抵抗의 連續이었다. 그의 抵抗은 文學의 世界와 結付되어 새로운 境地를 開拓하였고, 그의 思想은 新舊 交替하는 時代의 인 영향을 입어 儒佛의 混合 속에서 調和를 摸索하였다.

栗谷은 傳記에서 “梅月堂은 사람됨이 얼굴이 못생기고 키는 작았지만 智勇이 非凡하여 英特하게 뛰어났다. 간소하고 솔직하며 엄숙한 몸차림은 없었지만 군세고 곧아서 남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시대를 슬퍼하고 世俗에 대해 분개하였다”²⁾고 記錄하였다.

그의 文學的인 特性은 그 生涯가 多樣했던 것처럼 內容에 있어서도 素材가 各樣各色이었고, 儒敎에 대한 該博한 知識이 그대로 露出되었다. 그의 詩는 個人的인 理想의 挫折과 社會的인 與件때문에 悲奮慷慨한 나머지 抵抗精神이 짙게 깔려 있었고, 僧侶生活에서 얻은 禪味와 放浪生活에서 體驗한 神秘스러운 自然의 發見은 他從을 不許하는 特性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理想과 現實 사이에서 얻은 苦悶은 어쩔 수 없이 沈鬱한 文學이 될 수밖에 없었다.

栗谷은 梅月堂의 文章을 評하여 “물이 솟아나오듯 바람이 일어나듯 채주가 비상하고 신이 숨어 있는듯 바다가 잠겨 있는듯 널리 包容하며 神이 부르면 귀신이 和答하는듯 살머시 들어나 겹쳐 나오듯 詩文이 妙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³⁾고 하였고, 李紆는 <梅月堂集序>에서 그의 詩 特性을 다음과 같이 評하였다.

其爲詩 浩蕩 朝夕 烟雲 騷風 冒雨 怒噴喜笑 皆成句語 不規規於聲律而典章不紊 不刺刺於詞華而璞愈顯⁴⁾(李紆：梅月堂集序)

2) 上揭書, p. 466.

梅月堂 爲人貌癯身短 豪邁英發 簡率無威儀 頸直不容人過 傷時憤俗(附錄 卷 2.1 本傳)

3) 上揭書, p. 9.

其爲辭也 水涌風發 山巖海涵 神唱鬼酬 聞見層出 使人莫知端倪(李珥：梅月堂集序 11 金時習傳)

4) 上揭書, p. 3.

(그 詩가 호탕하여 밀물이나 썰물 같고 연기나 구름 같고, 타란을 물고 비를 꾸짖고, 성내고 기백서 웃는 것이 모두 詩文이 되었다. 聲律을 바르게 하려고 꾀하지 않아도 章法이 문란하지 않고, 훌륭한 詩文을 위해 다들 지 않았어도 큰 옥석처럼 더욱 아름다웠다)

梅月堂의 文學의 特性은 詩文이 호탕하며 變化가 많고 무엇이든지 널리 包容하여 그 규모가 크고 재주가 非凡하여 다들지 않아도 저절로 공교해서 보석처럼 아름답고, 韻律이 또한 格式을 벗어남이 없이 꼭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다.

2. 屈原의 特性

屈原은 楚國이 危機를 맞았을 때에도 굳은 信念을 가지고 強烈的 祖國愛에 불타고 있었다. 亂世에도 正義感으로 保身하였으나 惡德政治家들의 참소로 國王에게 버림을 받고 怨恨을 품고 汨羅水에 投身하였다. 屈原의 傳記는 오늘까지 分明하지 않다. 司馬遷의 「史記」가 唯一한 基本資料가 되지만 그 自身 屈原과 같이 朝廷에서 不當한 罪를 뒤집어 쓴 일이 있어서 同病相憐格으로 屈原에 대하여 깊은 同情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傳記를 額面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는 見解가 있다. 그러나, 이 「史記列傳」보다 確實한 것이 없는 한 이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

屈原正道直行 竭忠盡智以事其君 讒人間之 可謂窮矣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屈原之作離騷 蓋自怨生也⁵⁾(史記 卷84 屈原 賈生列傳 第24)

(屈原은 바른 도리와 굳은 행동을 하고 忠誠과 지레를 다하여 그 임금을 섬기었으나 讒告하는 사람들이 이간하여 일이 곤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信義를 지키고도 의심을 받고 忠誠을 다하고도 비방을 받았으니 원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屈原이 <離騷>를 지은 것은 怨心에서 나온 것이다)

屈原이 放逐된 原因과 <離騷>를 쓰게 된 動機에 대하여 簡明하게 敘述하였다. 그는 楚나라 王室과 同性인 貴族이었고, 懷王 때 左徒와 三閭大夫를 歷任하면서 王의 信任이 두터웠다. 그러나, 上官과 同列

5) 司馬遷, 史記(서울: 景仁文化社, 1977), p. 623.

의 大夫들에게 시기와 배척을 당하여 그들의 참소로 말미암아 放流되었다. 그는 임금을 모시고 나라를 일으켜서 옛날로 돌아가기를 세 번이나 <離騷>에 읊었으나 懷王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 임금은 충성과 그렇지 못함을 分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으로는 鄭袖의 피임에 넘어가고 밖으로는 張儀에게 속아서 屈原을 멀리하고 上官大夫와 令尹子蘭을 믿었기 때문에 兵士들은 꺾이고 國土는 짊어져서 六郡을 잃고, 王自身은 秦나라에서 客死하였으니 天下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不幸은 결국 屈原과 같은 賢才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自殺한 後 楚나라에는 그와 같은 諫臣이 없어서 楚는 秦에게 滅亡하였다. 그가 죽은 지 百餘年 뒤에 漢의 長沙王 太傅 賈誼가 屈原과 같이 참소를 당해 귀양가다가 湘水를 지나면서 <弔屈原賦>를 지어 물속에 던져 그를 弔慰하였다.

司馬遷은 屈原의 <離騷>에 대하여 “文章은 簡潔하고 言語는 微妙하고 뜻은 潔白하고 行動은 清廉하고 文章에 表現된 內容은 적으나 그 뜻은 매우 크고, 卑近한 例를 들었지만 그 나타내는 道義는 高遠하였다. 潔白하였기 때문에 芳香이 있고, 清廉하였기 때문에 죽어서도 世上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흙 속에 살면서 潔白으로써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의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日月과 빛을 다룬다 해도 좋을 것이다.”⁶⁾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屈原은 君王에 대하여 忠誠心을 가지고 있었고, 特히 清廉高潔한 性格은 俗世의 混濁과 和合할 줄 몰랐으니 伯夷叔弟와 比肩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는 思想에 있어서는 儒敎와 道敎와의 混合主義라고 할 수 있으며 道義에 대한 信念이 建하였고, 社會生活에 있어서는 善의 實踐을 主唱한 것은 儒敎의 精神과 相通하고, 超俗하여 神怪를 論하고 想像力이 豊富한 面에서는 老莊을 本質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政治家도 哲學者도 道德家도 아닌 遠대한 理想을 가진 多情多感한 한 사람의 詩人이었다. 다만 時運을 잘못 타서 그의 生涯는 結果的으로 現實에 대한 反抗과 時世에 대한 悲憤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中庸을 사랑하는 中國의 國民性과는 相反되는 極端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邪惡한 社會에 同化하기를 拒否하고

6) 上同.

抗拒하였으나 社會을 變革시킬 能力은 없었다. 그의 自殺은 그의 個性의 強烈하고 純粹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性格이 결국 千古에 獨步하는 大文學家가 될 수 있었다.

II. 梅月堂의 視角

司馬光은 屈原에 대하여 中庸의 道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敎訓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의 「資治通鑑」에서는 그에 대하여 言及하지 않았다. 屈原의 中庸問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梅月堂에게 묻기를 “당신은 전에는 中庸을 찬양하였는데 지금은 또 屈原을 찬양하였으니 그의 忠誠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또 그 때 임금이 써 주지 않았으면 그만이지 굳이 물에 빠져 죽어야 한단 말인가? 楊雄 班固 楊己 顏之推等도 모두 屈原의 忠誠은 결국 임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梅月堂은 屈原의 行爲가 中庸에 맞지 않았다는 先儒들의 主張을 認定하면서 “但取處世之變 其所盡力 非世間偷生幸死者可及 故以贊美而復賦詩以想情歟”(續集 卷1序 感懷三篇後序)이라 하여 죽음도 不辭한 忠情을 取하여 그를 讚美한다고 대답하였다. <汨羅淵賦>에서 梅月堂은 “屈原이 돌을 안고 몸을 물에 던진 지 千年이 지나도 後世 사람들에게 그 모습에 살아 있는 듯 남아서 지금도 곁에 있는 듯하고, 忠臣 義士의 大節이 세월이 오를수록 더욱 아름답다”⁷⁾(文集 卷 22.3—4)고 讚揚하였다. 反面에 그는 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哀痛하게 생각하였다.

湘江千古弔幽魂 상강에서 죽은 千古의 넋을 조상하나니
 憔悴行吟爲底冤 초췌한 몸으로 행음함은 원통 때문이리라.
 若使先生遭盛世 만약 선생이 좋은 때를 만났더라면
 汨羅應欠斷腸猿 벽라수에 는 웅담 단장의 잔나비 없었으리⁸⁾(詩集 卷 2.2 詠史 詠三諫臣 屈原)

잔나비에 感情을 移入하여 그의 비참한 最後를 슬퍼하였다. <甘泉>

7) 金時習, 前掲書, p. 375.

8) 上掲書, pp. 350—351.

9) 上掲書, p. 58.

이 단 詩에서도 “還嗟人世事 誰識屈原醒”(詩集 卷 1.9)과 같이 읊어 世人이 모두 汚泥에 빠져 있었지만 屈原만은 孤高하게 清廉을 지켜 왔음을 높이 評價하였다. 봄이 와서 맑은 물이 흐르고 지팡이를 짚고 낚시터에 갈 수 있는 太平客이지만 “汨羅未必獨醒醒”(別集 卷 3 四浮山十六題 平常)과 같이 언제나 屈原을 잊을 수가 없었다. 清香과도 같은 屈原은 歲月이 흐를수록 더욱 꽃다운데(清香到老猶芬馥 <詩集 卷 3.37 十月初吉見殘菊寒蜂有感>) 沙石을 품고 죽은 그는(忠臣死必懷沙石 <詩集 卷 13.16 因興謾成>) 아직도 楚나라를 잊지 못하는 듯 沅水와 湘水의 물가에 그의 원한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還似三閭猶戀楚 沅湘澤畔守憂思 <詩集 卷 3.37 十月初吉見殘菊寒蜂有感>) 구슬 같은 눈물이 천 줄기나 흘렀다.(緣纓珠淚落千行 <詩集 卷 13.16 因興謾成>) 그는 계속해서 屈原에 대한 감회를 읊었다.

湘江如練月如盤 상강은 비단 같고 달은 쟁반 같은데
遙想靈均意不闌 멀리 영균(屈原)의 뜻 살아있음을 생각한다.
雨過平洲芳杜若 평주에 비가 개이니 두약(香草)이 향기롭고
風來別岸泛崇蘭 강 건너 바람 부니 큰 난초 떠온다.
江南日暮思公子 강남에 해저무니 공자를 생각하고
郢北雲遮怨上官 서울(楚國) 북쪽 구름 가리니 상관을 원망한다.
今古疾賢如此耳 고금으로 어진 사람 질시함이 이와 같을 뿐이니
不堪搔首涕洟瀾¹⁰⁾ 머리 긁으며 눈물 쏟아짐을 참지 못한다.
(詩集 卷 1.36 感懷 右屈平)

눈물이 쏟아짐을 견디지 못하는 까닭은 屈原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憐憫의 情 때문일 것이다. 이 詩는 특히 屈原만을 위해 썼고, “杜若”과 “崇蘭”과 같은 用語는 屈原의 “采芳洲兮杜若”(楚辭：九歌 湘君)과 宋玉의 “光風轉蕙汎崇蘭些”(楚辭：招魂)에서, “涕洟瀾”은 “涕泣隨而洟瀾”(陸機：弔魏武帝文)에서 各各 借用하였다. “郢北雲遮怨上官”과 “今古疾賢如此耳”는 奸臣들이 王의 聰明을 가리어 忠臣을 멀리하게 된 不幸과 쫓겨난 孤臣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賢人을 疾視하는 惡習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음을 恨歎하였다. 그렇게 뜻이

10) 上揚書, p.55.

곧고 믿음직하며 국가가 장차 위태로와 멸망하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드디어 돌을 품고 불고기 배속에 장사지낸 屈原의 높은 志操에 대하여 그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同情을 보였다.

兩彼汨羅 傷心搖浪 千秋萬歲 忠魂誰訪 有漢賈生 赴吊惆悵曰 遭不祥 措直舉任 細讀離騷 中心澹澹 世雖云遠 如接音響那堪 閱史曾歎憊憊¹¹⁾(文集 卷 19.5 楚屈原贊)

(저 떡다수를 바라보니 출렁이는 불결에 마음이 아프다. 千秋 萬歲의 충혼을 누가 찾으리, 한나라 가생(賈誼를 말함)이 그곳에 가서 그를 吊慰하여 탄식해 말하기를 '상서스럽지 못한 세상을 만나니 정직한 사람을 버리고 不正한 사람만 登用한다'고 하였다. <離騷>를 자세히 읽어보니 마음속 끝없이 넓어지고 비록 世代는 멀다 말하지만 그 소리 지금도 들리는 듯 견딜 수 없다. 「史記」를 보면 그만 슬퍼서 마음 둘 곳 모르겠다.)

屈原과 같은 賢人이 上官大夫의 참소에 依하여 임금으로부터 放逐된 事實에 梅月堂은 憂憤하였고, 湘流에 臨하여 魚腹에 장사 지낸 清廉高潔한 性癖에 대하여 一生 尊敬과 思慕를 금할 수 없었다. 知制敎 趙忠熙는 <彰節祠致祭文>에서 梅月堂을 “清簡遜跡猖狂 平生離騷 日月爭光”(附錄 卷 2.75)과 같이 追慕하였는데 그는 平生 <離騷>를 愛讀하였음을 알 수 있다.

梅月堂이 屈原을 尊敬하고 <離騷>(梅月堂은 <離騷經>이라 하였음)를 愛讀한 背景을 살펴 보면 그는 楚나라가 滅亡直前に 놓였을 때 祖國을 救援하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抗拒한 그 信念 때문에 後世 사람들이 敬慕한 것은 물론이러니와 한 때에는 조정의 高官이면서 江南에 放流되어 民衆속에서 살았고, 참소를 당하였으나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원한을 품고 투신한 것에 義憤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擬弔湘樂>에서 “屈原의 形影이 떠난 지 이미 오래 되었건만 지금도 가슴 속에 그대로 황황하고 양양하게 남아 있고, 그 조행이 순수하여 끝내 더러움을 따를 수 없어 어지러운 세상을 멀리하였다”¹²⁾(文集 卷 22.

11) 上揭書, p. 311.

“憊憊”은 “心憊憊其不我與兮”(楚辭：九歎遠遊)와 “耳聊而憊憊”(楚辭：九歎怨思)에서 白來하였고, 註에서는 憊憊는 無思慮貌 憂愁也 無所依歸也”라 하였다.

12) 上揭書, p. 350.

2-3)고 追悼하였다.

中國 歷史上 屈原과 같은 處地의 人物이 伯夷叔弟라든가 伍子胥 介子推 賈誼 等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음에도 不拘하고 唯獨 屈原에 대한 愛着이 강한 理由는 그 〈離騷〉가 가지고 있는 感化力에 吸引된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屈原에 대한 梅月堂의 視角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의 文集 속에는 屈原의 投影이 절게 깔려 있었음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라 할 수 있다.

Ⅲ. 細讀 〈離騷經〉

「楚辭」는 「詩經」과 더불어 中國 上代 韻文의 代表作品이다. 「詩經」이 現實的 人間生活의 規範을 나타낸 古典이라면 「楚辭」는 華麗한 浪漫的인 要素가 加味된 作品이다. 「詩經」이 「楚辭」에 미치지 못한 理由는 前者가 有命無命의 作品으로 이루어졌지만 後者는 愛國詩人의 일관된 創作을 中心으로 썼기 때문이다. 河北과 江南이라는 風土와 文化의 差異도 原因이 되겠지만 결국 屈原의 藝能的 天分에 起因한 것이 큰 理由가 될 것이다. 그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縱橫無盡 그 빛을 나타내었다. 特히 비유에 있어서는 自然의 善鳥香木을 忠貞에, 惡鳥臭草를 참소와 아침에, 美人을 國王에, 貞女를 賢臣에 비유하였다. 또 “兮” “些” “羌” “蹇” “爽”과 같은 梅의 方言文字가 교묘하게 配合되어 있으니 그의 文才는 더욱 빛을 내었다고 할 수 있다.¹³⁾

이 「楚辭」는 楚人들의 作品만이 아니라 屈原을 비롯하여 그 遺風을 계승한 漢代의 作品까지 包含되어 엮여져 있다. 그리고, 「楚辭」 中에는 屈原의 作品이 몇 편 들어 있는 지 分明하지 않다. 「漢書」〈文藝志〉에는 “屈原二十五篇”라고 記錄하였을 뿐 그 作品名에 대해서는 記錄이 없었다. 王逸의 「楚辭章句」와 朱熹의 「楚辭集注」를 比較하면 그 篇名과 作者가 다르니 어디까지 屈原의 作品인지 現在까지 分明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梁啓超는 〈離騷〉〈九歌〉〈10篇〉〈天問〉〈九章〉〈8篇〉〈遠游〉〈卜居〉〈漁父〉〈九辯〉〈招魂〉等 25篇으로 整理하면서 이

13) 長澤規矩也, 支那學術文藝史(東京:三省堂, 1959), pp. 78—79.

것이 모두 屈原의 作品인지 또는 戰國時代 末年의 無名氏의 作品을 後人이 屈原의 이름을 끌어다 붙였는 지 그것은 더욱 研究의 餘地가 있다고 自信 없는 表現을 하였다. 그러나 <離騷> 만은 屈原의 作品임에 틀림 없을 뿐만 아니라 「楚辭」中에서 代表的인 待遇를 받고 있다.

「文心雕龍」<辨騷>에서 <離騷>가 後代에 준 영향에 대하여 재주가 高傑한 사람은 그 뛰어난 作品構成을 受容하고, 솜씨가 좋은 사람은 그 아름다운 文辭를 찾아 붙잡고, 自然을 음영(吟咏)하는 사람은 그 山川의 風趣를 다루는 솜씨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初心者는 香氣 등의 비유를 주어 모은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贊辭를 보냈다.

不有屈原 孰원이 없었더라면
豈見離騷 어찌 <離騷>가 있었으리
驚才風逸 놀라운 재주는 바람처럼 빠르고
壯志煙高 강한 뜻은 하늘에 솟구친다.
山川無極 산천이 끝이 없듯이
情理實勞 정리 진실로 아득하다
金相玉式 金같은 素質과 玉같은 格式으로
艷溢鎔毫¹⁴⁾ 구석구석 밝힌 솜씨 아름다움 넘친다.

<離騷>에는 屈原의 才能과 雄大한 志氣, 無限한 素材와 情理, 金玉 같은 文體가 빈틈없이 아름답게 表現되었음을 높이 評價하였다.

「楚辭補註」의 <離騷經章句第一>에서도 “離騷의 文辭는 溫和하면서도 아름답고 그 뜻은 매우 밝아 모든 君子는 그 깨끗하고 높은 人格을 사모하고 그 文采를 칭찬하고, 그 不遇한 생애를 슬퍼하고, 그 뜻을 애처롭게 여겼다”¹⁵⁾고 하였다. 梅月堂이 <離騷>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 心情도 이러한 점에서 理解할 수 있다.

梅月堂의 詩 “客路身多病 無端詠楚辭”(詩集 卷 1.6 早行)에서 떠돌아 다니는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늘 「楚辭」를 愛讀하였고, “楚辭一卷 風前亂 昌歎千莖雨後香”(詩集 圈 13.16 因興謾成)에서도 같은 心情을

14) 劉勰, 文心雕龍(台北: 世界書局, 1964), p. 14.

15) 洪興祖, 楚辭補註(台北: 藝文印書館, 1974), p. 12. 其辭溫和而雅 其義歸而朗 凡百君子慕其清高 嘉其文采 哀其不遇而愍其志焉.

을었으나 때로는 “屈宋風騷徒爾爾 丘軻道德謾峻峻”(詩集 卷 13.16 因興謾成)과 같이 오히려 逆說의 表現할 때도 있었다. “忠臣死必懷石 勇士終當裹革囊”(詩集 卷 13.16 因興謾成)처럼 그의 죽음에 대하여 怨望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夜深蟋蟀鳴西堂 밤이 깊어 귀뚜라미 서당에서 우는데
起坐吾伊三四行 일어나 앉아 초사 서너줄 읽었다.
太息慷慨不能寐 한숨과 분개로 잠 못 이루는데
梧桐月影侵書床¹⁶⁾ 오동나무 사이 달빛이 책상에 비친다.

(詩集 卷 12.13 讀楚辭)

〈讀楚辭〉3首中 제 2首에 該當하는 詩로서 第1首에서는 屈原의 不幸한 죽음에 대한 원통한 心思를 읊었고, 여기 제 2首에서는 그의 作品을 읽고 분개하였고, 제 3수에서는 그의 죽음이 어쩔 수 없었음을 개탄하였다. 梅月堂은 平生 〈離騷〉를 읽었고, 남이 그것을 읽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다.

每值皓月朗然 中宵獨坐 令沙彌詠離騷 經一過 輒泣下霑襟 性嗜酒飲醉 則曰 不見我英廟 流涕甚悲¹⁷⁾(龍泉談寂記)

(흰 달이 밝게 비칠 때마다 밤중에 홀로 앉아 修道僧에게 〈離騷經〉을 한 차례 읊게 하고는 곧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었다. 친성이 술을 좋아하여 마시고 취하면 곧 말하기를 영릉(世宗大王)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몹시 슬퍼하였다.)

이 글은 南孝溫이 쓴 「靖義諸臣列傳」〈贈吏曹判書清簡公金時習〉의 文章을 그대로 引用하였다. 그리고 知製敎 朴壽淳은 “空山聽騷 悲涕縱橫 渭川題詩 感慨交並 冰霜皎潔 瘁垢不嬰 日月光明 節義可爭”¹⁸⁾(附錄 卷 2.62)이라 하였으니 〈離騷〉 읽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爲人임을 알 수 있다. 梅月堂이 〈離騷〉에 대한 愛着과 感動이 이렇하였

16) 金時習, 前掲書, p. 220.

17) 金安老, 龍泉談寂記(大東野乘 I)(서울:慶熙出版社, 1968), p. 403.

18) 金時習, 前掲書, p. 497.

기 때문에 그의 시에서도 그러한 感情이 많이 反映되었다.

그의 〈投贈〉이란 시의 小題 〈贈安生員〉에서 가슴이 답답하여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활달해졌는데 “夜靜讀離騷 孤忠何慘恒”(詩集 卷 6.4)처럼 屈原의 일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슬퍼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閑適〉의 小題 〈掃葉〉에서도 “無端起我悲秋興 細讀離騷心未平”(詩集 卷 2.19)과 같이 가을이란 季節에서 받은 悲哀를 덜고자 〈離騷〉를 읽었으나 마음은 역시 平安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自歎〉에서는 “悶病每於看史得 愁腸頻向課騷新”(詩集 卷 1.34)과 같이 〈離騷〉를 읽으면 근심스러운 마음이 새로와진다고 하였으니 잠시나마 悶病을 克服하였다고 볼 수 있다.

梅月堂의 눈에 비친 비뚤어진 世上, 야속한 현실에 대하여 그는 품어오르는 의분을 참기 힘들었고, 때로는 책을 읽다가 통곡하고 詩를 지어서는 찢어서 냇물에 던지기도 하였다. 당시의 世態를 보고 분노와 역겨움을 느낀 그의 抗拒는 諷刺와 야유로 바뀌었고 反抗하는 知性으로 生涯를 一貫했다. 그가 平生 〈離騷〉를 읽게 된 裏面에는 屈原의 원한과 슬픔이 드디어 自殺에까지 몰고 갔고, 그 高貴한 精神과 훌륭한 政治的 外交能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려 祖國을 구제할 수가 없었던 것을 哀痛하게 여겼고, 放浪의 動機에 있어서 梅月堂의 自意와 屈原의 他意에 대한 差異는 있었으나 時代를 超越하여 屈原과 自己를 同一한 時勢難容의 不遇人으로 간주하였고, 特히 〈離騷〉는 읽을 때마다 梅月堂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으나 反面에 唯一한 慰安이 되기도 하였다.

IV. 語句上의 受容

端午節은 屈原이 5月 5日(陰)에 汨羅水에 投身한 날이며, 이 날이 되던 楚人들이 그를 애처롭게 생각하여 竹筒에 쌀을 넣어 물에 던져 그를 제사지냈다고 하는데 (續齊諧記), 우리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風俗이 있었다. (洸陽歲時記：國人稱端午日 水瀨日 謂投飯水瀨 享屈三閭也) 梅月堂의 〈端午〉라는 시에 “난초랑에 목욕하고 향기롭고 맛있는 주약(떡의 일종)을 먹었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傳來

의 風俗에는 蘭草가 아니고 菖蒲로 되어 있다(東國歲時記: 男女兒童取菖蒲湯 頰面 皆着紅綠新衣). 같은 詩의 “千古楚江遺恨在 些章吟罷倚筠床”(詩集 卷 3. 38 端午)에서 “遺恨”은 端午날 投身自殺한 屈原에 대한 怨恨이며 “些章”은 <離騷>를 말하는 것으로 역시 그것을 吟讀하였음을 알 수 있다.

<離騷>는 375句에 2490字로 된 長篇이며 그 前半은 自叙傳的으로 自己의 家系와 出生, 그리고 타고난 才能과 몸이 낸 道德을 자랑하고 自己는 임금을 도와서 理想的인 政治를 하려고 하였으나 험뜯는 사람들 때문에 失脚되었고 임금은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금 내 마음을 알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하고 슬픈 處地를 呼訴하였다. 後半은 現實을 超越하여 理想的인 相對를 求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現實에 되돌아 오지만 世上의 汚濁에 견디지 못하여 祖國을 떠나려고 決心하지만 역시 故鄉을 버릴 수 없어서 결국 殉國할 수밖에 없었다. 梅月堂의 <擬離騷>는 文字 그대로 <離騷>를 흉내 내어 지은 것으로 內容이나 用語에 있어서 그것과 비슷한 곳이 많다. 序頭에서 祖考의 美德과 氣稟의 精英함을 바탕으로 탄생하였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叙述하였는데 이는 <離騷>의 序頭와 비슷하다. <離騷>의 “肇錫余以嘉名”을 “獎之余而嘉名”으로 表記하였고, “扈江離與辟芷兮 紉秋蘭以爲佩”와 “貫薛荔之落藥”을 “紛貫佩以薛荔兮 又重之以蘭苞”로, “彼堯舜之耿介兮 既遵道而得路 何桀紂之昌被兮 道夫唯捷徑以窘步”를 梅月堂은 “彼堯舜之欽明兮 既遵路兮 皇猷何桀紂之淫昏兮 乃窘步乎”로 受容하였으나 그 用語에 있어서는 “耿介”를 “欽明”으로, “遵道”를 “遵路”로 變用하였다. “昌被”는 “淫昏”으로 그 뜻이 비록 다르다고 하나 그 行實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雖九死其猶未悔”를 “雖九死其難拋”라고 援用하였고, 또 “製艾荷以爲衣兮 藥芙蓉以爲裳”을 “衣艾荷之綽約兮 懷臣蘭之 芳馨”이라고 表現하였다. 그리고, <離騷>의 “亂(卒章)曰”의 “吾將從彭咸之竹居”를 梅月堂은 “亂曰” 바로 앞에서 “依彭咸以爲類兮 寧江潭之絡赴葬魚腹 隨波而上下兮 焉能改乎前度”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屈原의 志操를 따르겠다는 決意라고 볼 수 있다. 用語에 있어서도 “嘉名” “薛荔” “窘步” “耿介” “彭咸” “亂曰”等 同一한 것을 使用하였다. 그러나 <離騷>에 나오

는 “靈修”는 “夫唯靈修之故也” “傷靈修之數化” “怨靈修之浩蕩兮”와 같이 자주 使用되었는데 梅月堂은 <擬楚辭九歌>에서 “蹇靈修兮來歡”과 같이 活用하였고, <離騷>의 “製芰荷以爲衣兮”에서 “芰荷”와 “紉秋蘭以爲佩”에서 “紉蘭”을 梅月堂은 “將製芰荷衣 紉蘭佩薛荔”(詩集 卷 4. 21 坐溪邊石)와 같이 借用하여 表現하였다. 이와 같이 「楚辭」中에서 <離騷>는 梅月堂의 作品에 가장 많이 受容되었음을 알 수 있다.

「楚辭章句」<九歌>序頭에서 王逸은 “옛날 초나라 서을 남쪽 沅水 湘水 地方에서는 그 風俗이 靈魂을 믿고 제사지내는 일을 좋아하였는데 그 때에는 歌舞로서 神을 즐겁게 하였다. 屈原이 쫓겨나서 그 地方에서 숨어 살면서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가서 民衆들의 祭祀하는 儀式과 歌舞하는 音樂을 보고 그 歌辭가 鄙陋하였기 때문에 九歌를 지었다고 그 지은 動機를 말했고, 그 內容에 대하여서는 위로는 神을 섬기는 敬虔한 마음을 말하고 아래로는 自己의 怨恨을 나타내고 아울러 임금에 대한 諷諫을 읊었다. 때문에 그 文意가 같지 않고 그 章句도 雜錯하여 넓고 뜻이 한결같지 않다고 說明하였다.”¹⁹⁾ 梅月堂도 <雜著>에서 <九歌>와 같이 11篇의 글을 썼는데 그 <鬼神>篇에서 屈原의 <九歌>를 짓게 된 動機를 “屈原은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湘水 남쪽으로 추방되어 스스로 그 情과 뜻을 임금에게 진술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淫祀의 노래에 기탁(寄託)하여 忠臣이 賢明한 임금의 愛情을 얻지 못한 心情을 叙述하여 임금의 마음을 깨우치기를 바랬으나 끝내 들보지 아니하였다”²⁰⁾고 하였다. 이 <九歌>는 題目과는 달리 王逸 朱熹 洪興祖 등은 그 안에 11篇을 收錄하고 있었으나 後世에 와서 “九”라는 數에 맞추기 위해 九篇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한 사람들이 있었다.

林雲銘은 「楚辭燈」에서 <九歌>의 “山鬼” “國殤” “禮魂”을 합하여 1篇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文選」에서는 “國殤” “禮魂”을 除外하였고, 顧成天 蔣驥 등은 “湘君”과 “湘夫人”을 합하고, “大司命”과 “小

19) 洪興祖, 前掲書, pp. 98—99.

20) 金時習, 前掲書, p. 299.

清寒子曰 屈原既不遇君主 放逐湘南 自不能陳其情志 乃托淫祀之歌以抒忠臣不獲明主之情 冀悟君心 而終不省也(文集 卷 17. 29 鬼神第八)

물을 흘뜨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태앗으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리고 金鎰, 金鏞 형제도 ‘素稱小品中人’이라 지칭하면서 경박한 무리로 몰아붙이고 稗官小品 쓰는 죄를 비난했다.¹⁰⁾ 다만 金建淳만은 金尙憲의 奉祀孫이고, 정조 자신이 ‘不可忘之事’가 있는 金亮行의 孫이니 관대히 용서하자고 했다. 이병모가 ‘惑衆之律’과 ‘亂言之誅’로써 처벌할 것을 강경히 주장했으나 정조는 輕薄無行하여 讀書를 하지 않고 小品에만 빠져서 그렇다고 하면서 士大夫들이 小品文字를 보지 않도록 당부하고, 陞試에서 文體筆劃이 曠殺輕斜한 자들을 축출하라는 등 文體에 관한 문제로 방향을 바꿔 엄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강이철은 제주도에, 김이백은 흑산도, 김려는 慶源(나중에 옮겨서 富寧)에 정배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지어졌다. 며칠 후 刑曹의 堂上官들이 聯劄하고, 玉堂과 兩司에서도 상소하여 정배를 취소하고 엄중히 국문할 것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정조는 이들을 다만 小品에 힘써서 文體가 曠殺한 輕薄輩로 몰아서 사건을 문체의 문제로 국한시켜 버리고 정치적 문제로 확대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파와 관련한 모함에서 비롯된 정치적 문제들 지닌 사건이었다. 김려는 이 사건에 대하여 후일에 쓴 「先府君遺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府君께서 懿陵승으로서 瓜滿하여 南部로 옮겼는데 또 만기가 되자 沈煥之가 亞鎰의 자리에 있으면서 막아 옮길 수 없었다. 처음에 내가 풍고 김조순과 죽마의 교우를 맺고 또 陳重, 衛羲의 우정이 있어 매우 사방하였고, 참판 申耆는 나의 부친과 친구라 때때로 왕래하며 붙었던 것이다. 이때에 심환지 일파가 바야흐로 권력을 전담코자 했는데 나를 다른 무리와 結交한다고 부친을 배척하기에 이르렀으니 원통하지 않은가. 이 해(丁巳年을 가리킴—원자) 7월에 都政으로 있던 族叔父 煥瓚이 首鎰으로서 죄를 입고 그만두니 鄭公 民始가 鎰長으로 들어와 開政하여 비로소 龍潭에 재수될 수 있었다. 내게 나의 丁巳年의 禍가 이미 이 때에 조짐을 보인 것이다.”¹¹⁾

10) 同上, 鑿舜天 予自願見 不過一經佛無行之輩 薄有才藝 時參陞試 而見其文體 曠殺浮輕 專是小品……前渠所謂金鎰兄弟 亦素稱小品中人也.

11) 金鎰, 『遺稿』 권12. 「先府君遺事」 府君以懿陵令瓜滿遷南部 又當瓜期 沈煥之爲亞鎰阻撓不得遷 初不省與金樞稟祖淳 有襟摯之契且有陳衛之誼相愛甚 申參判嘗於不肖父執 或時時往來問訊 當是時煥之一隊力進用事 以不肖爲交結非類 遂至排斥府君 可勝

何不變此志也”는 그 뜻이 忠直을 執守하여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인데 梅月堂은 “懲羹吹蠶即莫揆 從遭百罹其可追”(詩集 卷 5.11 蜂鑽紙)와 같이 援用하였다.

屈原의 <漁父>는 避世隱身하여 江濱에서 釣魚 自樂하는 漁父와 屈原이 서로 應答한 形式으로 된 作品이다. “屈原曰 舉世皆濁我獨清 衆人皆醉我獨醒 是以見放”²²⁾(漁父章句第七)에 대하여 梅月堂은 “還嗟人世事 誰識屈原醒”(詩集 卷 1.10 甘泉)으로 理解하였고, “春來幽谷水冷冷 策杖優遊傍釣汀 好是太平無事客 汨羅未必獨醒醒”(別集 卷 3 平常)에서는 屈原과 汨羅水를 結付시켜서 表面上 汨羅水가 屈原의 마음처럼 아직도 맑지 못하다 하였으나 결국 世上이 아직도 混濁되어 있음을 恨歎한 것이다. “漁父莞爾而笑 鼓枻而去 乃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遂去不復與言”(漁父章句第七)에 대한 梅月堂의 受容은 “扣舷欲和滄浪曲 雅志終難與世移”(詩集 卷 13.9 江頭)와 같은데 “扣舷”은 “鼓扣”와 同意語이며 “滄浪曲”은 一般的으로 <漁父>의 “滄浪之水清兮” 以下の 노래를 그렇게 말한 것이다. <濯纓臺>란 梅月堂의 詩는 그 題目부터 <漁父>에서 由來한 것이다.

昔賢曾此幾閑行	옛 어린이들 여기 얼마나 다녀갔을까
臺下溪流徹底清	대 아래 냇물 속까지 맑네.
一嘯只應除萬慮	한번 마셔도 온갖 걱정 사라지니
令人不敢濯塵纓	사람으로 하여 때묻은 갓끈 못씻게 하네

(續集 卷 1)

<漁父>에서 갓끈을 씻는 것은 벼슬길에 나아감을 말하는 것인데 이 詩에서는 山川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벼슬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뜻한 것이며 아름다운 自然情景 때문에 俗世와 妥協할 생각이 없다는 決意를 읊은 것이다.

結 言

古來로 政治人이나 文人들은 나라를 사랑하였으나 時運을 잘못 타

22) 洪興祖, 前掲書, p.296.

서 참소를 만나 官界에서 쫓겨 난다든지 멀리 流配를 간다든지 現實을 逃避하여 隱遁한다든지 아니면 憤痛한 나머지 水中的 孤魂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大部分이 屈原의 行迹을 追慕하고 그 文學에 共鳴하여 <離騷>體를 본떠서 自身들의 心懷를 敘述한 사람이 中國은 물론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屈原의 풍부하고 화려한 文辭에 끌려간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後世人들이 自己 信念이 達成되지 못하거나, 政治의 不合理와 國家의 危機, 民族의 辛苦를 痛切하게 憂慮하면서도 自身은 不可抗力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屈原이 強하게 蘇生하였기 때문이다.

梅月堂은 屈原의 強한 愛國心, 汚濁한 現實에 대한 憎惡와 妥協을 排除한 清廉한 行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君主로부터 不信과 追放을 당한 不幸한 運命에 同情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도 한때에는 운수가 좋으면 蘇秦처럼 높은 벼슬길에 오르고 궁하면 屈原처럼 離騷나 쓰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自己는 몰락하여 지팡이를 끌고 다니는 身世라고 읊었다. (詩集 卷 1. 22 壯志) 少年時節에는 神童이요 將來가 期待되는 큰 人材였다. 그러나 世祖의 王位 篡奪에 悲憤하여 책을 불사르고 집을 나가 20代의 政變을 漂浪의 길에 쏟았다 屈原에 비해 梅月堂은 自意의인 行動이었으나 大義가 무너진 비뚤어진 世上, 질식할 것 같은 現實에 義憤을 느낀 것은 屈原의 心情과 相通하였다. 汚濁混亂하여 변하기 쉬운 世上에서도 屈原은 自身의 潔白과 誠實, 자랑스럽고 높은 信念을 가지고 있었으나 奸臣輩들의 謀略에 의해 君王에게 버림 받고 뜻을 펴지 못하고 冤痛하게 죽었기 때문에 梅月堂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鬱憤과 痛恨, 그리고 同情과 尊敬等 서로 엇갈린 心懷가 來往하였다. 그것은 屈原의 不幸한 生涯 속에 自己를 發見하고, 同病相憐의 情을 금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屈原에 대한 人間의인 感化뿐만 아니라, <離騷>를 平生 愛讀할 程度였다. <離騷>는 屈原의 깊은 苦惱와 絶望의인 憂愁가 서려 있는 作品이기 때문에 後世의 讀者에게 深刻한 印象과 熱烈한 感情을 傳하였다. 歷史上 神話의인 人物은 물론 自然界의 現象에서 草木禽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의 作品素材와 表現手段이 되었다. 그의 奔放한 空想과 찬란한 文辭와 香氣 짙은 浪漫精神은 실로 中國文學의 搖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特性때문에 梅月堂이 이 作品에 魅惑되어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의 文集에는 直接 屈原과 關係가 깊은 文章이 많았으니 題目만 들어보아도 〈擬楚辭九歌〉 〈讀楚辭〉 〈擬天問〉 〈楚屈原贊〉 등이 있고, 〈騷賦〉 속에 〈擬離騷〉 〈擬弔湘纍〉 〈汨羅淵賦〉, 〈騷註〉 속에 〈懷沙賦正義〉가 있다. 이밖에 〈感懷：屈原〉 〈三諫臣：屈原〉에서도 屈原을 위한 單獨詩가 있다. 그의 詩나 文章 속에 出現한 屈原의 投影도 枚擧할 수 없을 程度로 많다. 이 事實만으로 그의 屈原에 대한 視角을 充分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屈原을 受容한 樣相에는 上記한 人間的인 感化와 「楚辭」 특히 〈離騷〉에 대한 愛讀과 그에 따르는 直接 間接的인 影響이 많았고, 表現形式과 詩文 內容과 語句 및 用語上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借用形態를 찾아 볼 수 있다.

屈原은 梅月堂에게 人間的인 感化는 물론, 詩文活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示唆을 주었고, 나아가서는 韓國文學 發展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